

울주군 일부지역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및 수준에 관한 조사

이정화[†] · 성미경¹ · 강현경² · 조갑숙³

춘해대학 치위생과, ¹마산대학 치위생과, ²동주대학 치위생과, ³부산시 강서구 보건소

A Study of Oral Health Knowledge and Status of the Elderly in Ulju-gun

Jung-Hwa Lee[†], Mi-Gyung Seong¹, Hyun-Kyung Kang² and Gab-Suk Cho³

Dep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Ulsan 689-784, Korea

¹Dept. of Dental Hygiene, Masan College, Masan 630-729, Korea

²Dept. of Dental Hygiene, Dongju College, Busan, 604-715, Korea

³Oral health unit, Gangseogu Health center, Busan 614-142,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ir perception of the dental hygiene and level of its knowledge by estimating status of senior adults' dental health management. First,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256 target senior adults aged more than 60, who were going to school for senior adults located in Ulju Country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interview direct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s for tooth brushing method, scrubbing method was used in male and rolling method was used in female and the survey results statistically revealed that rolling method was the most used in aged from 60 to 70(68.1%) and scrubbing method was the most used in aged more than 70(80.4%)[$p < 0.001$]. 2. As for reason of visiting dental clinic, female respondents accounting for the highest said they visited dental clinic when they feel a pain in the teeth and as for frequency of dental clinic, male respondents visited dental clinic for a once per a year. there was no difference statistically according to age(47.9%). 3. As for th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dental prosthetic treatment, there was higher positive response in the female than male, in the lower aged groups than higher aged group[$p < 0.05$]. 4. As for the question of whether to use of denture or not now, the survey results was statistically that the higher aged group and male groups were higher used dentures [$p < 0.001$]. 5. As for maintenance of denture, female respondents said the highest that they keep it in cold water after cleaning(95.5%), there was no difference statistically according to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p < 0.001$].

Key words Oral health knowledge and status, Elderly

서 론

건강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980년대부터 건강증진목표를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¹⁾.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됨과 더불어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시설의 확충, 영양상태 및 생활환경 등의 개선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높아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997년 29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6.3%, 2000년에는 339만 명으로 7.2%이었으며, 2022년에는 6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²⁾.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 도달할 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 하며, 14%에 도달할 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영국 47년, 일본 24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8년 정도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³⁾ 오랜 기간에 걸쳐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70년도에 남자 59.8세, 여자 66.7세였던 것이 2000년에는 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전체 평균 80세가 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⁴⁾.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및 소외감과 낙후감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등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하기 위한 노인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⁵⁾.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

위 논문은 2007년도 춘해대학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Tel: 052-270-0292

Fax: 052-270-0209

E-mail: yamako93@ch.ac.kr

사⁶와 2003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⁷에 따르면 65~74세 노인의 현존 영구치아수는 2000년 16.3개에 비해 12.1개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65~74세의 노인 중에서 의치가 필요한 경우는 2000년 40.2%에 비해 2003년에는 42.5%로 의치 필요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구강건강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 인구는 다른 연령층이 가진 건강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특히 심각한 건강문제가 더 수반되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에 있어서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저작능력이 저하되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선택범위가 좁아지고 식사의 양과 질 역시 저하됨으로써 건강과 체력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치아상실은 발음과 외모에 영향을 줌으로써 대인관계 및 원활한 사회생활에 제한을 주게 되어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⁸.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진료의 경우 보철이나 예방진료 등은 비 급여인 관계로 사회·경제적 경쟁력이 약한 노인의 구강보건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상실감 및 소외감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등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⁹.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들의 의치장착과 만족도 및 구강건강상태와 인지도¹⁰⁻¹²에 관한 연구와 기초생활대상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 및 인식도¹³⁻¹⁴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리 실태와 인지도를 조사하고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울주군 관내 노인들을 무작위로 추출 하여 2007년 3월 5일부터 2007년 6월 31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 4인이 설문조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노인의 청각장애등을 고려하여 직접 면접조사 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은 노인들의 구강건강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항목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구강보건행태 및 인지여부, 의치장착 필요성 여부와 의치 관리 실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에서 100%로 회수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전문프로그램(SPSS for Windows, Version 13.0, SPSS Inc)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다.
- 2) 구강보건행태 및 인지조사, 의치장착 필요성 여부와 의치

관리 실태는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성 여부는 $\alpha = 0.05$ 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는 47.7%, 여자는 52.3%였다. 연령별 분포는 60~69세 45.3%, 70세 이상 54.7%이었다. 교육정도는 무학 44.5%, 초등학교 졸업이상 55.5%이었다(Table 1).

2. 잇솔질 방법

성별 잇솔질 방법은 남자 횡마법 57.4%, 회전법 37.7%이었고, 여자 횡마법 9.7%, 회전법 71.6%로 남자의 경우 횡마법이 높았고, 여자의 경우 회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p < 0.001$).

연령별 잇솔질 방법은 60-69세 횡마법 19.0%, 회전법 68.1%였고 70이상에서 횡마법 80.4%, 회전법 45.0%로 60-69세에는 회전법이 68.1%로 높았고, 70세 이상은 횡마법이 80.4%로 높았다 ($p < 0.001$).

학력별 잇솔질 방법은 무학이 횡마법 28.9%, 회전법 60.5%였으며, 초등학교 졸업이상자에서는 횡마법 35.2%, 회전법 51.4%로 회전법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2).

3. 1일 잇솔질 횟수

성별 1일 잇솔질 횟수는 남자의 경우 1회 50.8%, 2회 39.3%, 3회 이상 9.8%, 여자의 경우 1회 18.7%, 2회 53.0%, 3회 2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 < 0.001$), 연령별 1일 잇솔질 횟수는 60-69세에서 1회 22.4%, 2회 56.9%, 3회이상 20.7%, 70세 이상에서 1회 43.6%, 2회 37.9%, 3회이상 18.6%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 < 0.001$), 학력별 1일 잇솔질 횟수는 무학에서 1회 35.1%, 2회 48.2%, 3회이상 16.7%, 초등학교 졸업 이상에서 1회 33.1%, 2회 45.1% 3회이상 2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4. 치과방문 실태

성별 치과방문 실태는 남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내원한다가 49.2%, 6개월마다 내원한다가 4.1%, 이가 아플 때에 내원한다가 46.7%이었고, 여자는 1년에 한 번 내원한다가 41.8%, 6개월마다 내원한다가 11.2%, 이가 아플 때에 내원한다가 47.0%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persons)	Percentage
	Total	256	100
Sex	Male	122	47.7
	Female	134	52.3
Age(year)	60-69	116	45.3
	70 <	140	54.7
Education	Uneducated	114	44.5
	More than Elementary-school graduate	142	55.5

Table 2. Tooth brushing method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crub Method	Rolling Method	The Others	p-value
	Total	83(32.4)	142(55.5)	31(12.1)	
Sex	Male	70(57.4)	46(37.7)	6(4.9)	0.000***
	Female	13(9.7)	96(71.6)	25(18.7)	
Age(year)	60-69	22(19.0)	79(68.1)	15(12.9)	0.000***
	70 <	90(80.4)	63(45.0)	16(11.4)	
Education	Uneducated	33(28.9)	69(60.5)	12(10.5)	0.343
	More than Elementary-school graduate	50(35.2)	73(51.4)	19(13.4)	

***p < 0.001

Table 3. Daily toothbrushing frequency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1 time	2 times	More than 3 times	p-value
	Total	87(34.0)	119(46.5)	50(19.5)	
Sex	Male	62(50.8)	48(39.3)	12(9.8)	0.000***
	Female	25(18.7)	71(53.0)	38(28.4)	
Age(year)	60-69	26(22.4)	66(56.9)	24(20.7)	0.001**
	70 <	61(43.6)	53(37.9)	26(18.6)	
Education	Uneducated	40(35.1)	55(48.2)	19(16.7)	0.584
	More than Elementary-school graduate	47(33.1)	64(45.1)	31(21.8)	

p < 0.01, *p < 0.001

었다.

연령별 치과방문 실태는 60~69세 1년에 한 번 내원한다가 42.2%, 6개월마다 내원한다가 8.6%, 이가 아플 때에 내원한다가 49.1%이었고, 70세 이상에서 1년에 한 번 내원한다가 47.9%, 6개월마다 내원한다가 7.1%, 이가 아플 때에 내원한다가 45.0%이었다.

학력별 치과방문 실태는 무학이 1년에 한 번 내원한다가 46.5%, 6개월마다 내원한다가 7.0%, 이가 아플 때에 내원한다가 46.5%이었고, 초등학교 졸업이상에서 1년에 한 번 내원한다가 44.4%, 6개월마다 내원한다가 8.5%, 이가 아플 때에 내원한다가 47.2%이었다(Table 4).

5. 치과방문 목적

성별 치과방문 목적은 남자에서 보철을 하기 위해 방문함이 51.6%, 여자 44.8%로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연령별 치과방문 목적은 보철을 하기 위해 방문함이 60~69세 44.8%, 70세 이상에서 50.7%로 70세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력별 치과방문 목적은 무학에서 보철을 하기 위해 방문함이 46.5%,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에서는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5).

6. 구강 내 보철장착 필요성 인식여부

성별 구강 내 보철장착 필요성 인식여부는 남자의 경우 필요하다 55.7% 필요하지 않다 44.3%이었고, 여자의 경우 필요하다 75.4%, 필요하지 않다 24.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p < 0.01),

연령별 구강내 보철장착 필요성 인식여부는 60~69세 필요하다 74.1%, 필요하지 않다 25.9%이었고, 70세 이상에서 필요하다 59.3%, 필요하지 않다 4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학력별 구강 내 보철장착 필요성 인식여부는 무학의 경우 필요하다 77.2% 필요하지 않다 22.8%이었고, 초등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필요하다 57.0%, 필요하지 않다 43.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Table 6).

Table 4. Status visit of dental clin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1 per a year	1 per 6 months	pain	p-value
	Total	116(45.3)	20(7.8)	120(46.9)	
Sex	Male	60(49.2)	5(4.1)	57(46.7)	0.087
	Female	56(41.8)	15(11.2)	63(47.0)	
Age(year)	60-69	49(42.2)	10(8.6)	57(49.1)	0.654
	70 <	67(47.9)	10(7.1)	63(45.0)	
Education	Uneducated	53(46.5)	8(7.0)	53(46.5)	0.889
	More than Elementary-school graduate	63(44.4)	12(8.5)	67(47.2)	

NS: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Table 5. Purpose visit of dental clin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aries	Prosthesis	Oral exam	p-value
	Total	100(39.1)	123(48.0)	33(12.9)	
Sex	Male	40(32.8)	63(51.6)	19(15.6)	0.118
	Female	60(44.8)	60(44.8)	14(10.4)	
Age(year)	60-69	51(44.0)	52(44.8)	13(11.2)	0.328
	70 <	49(35.0)	71(50.7)	20(14.3)	
Education	Uneducated	45(39.5)	53(46.5)	16(14.0)	0.852
	More than Elementary-school graduate	55(38.7)	70(49.3)	17(12.0)	

NS: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Table 6. Recognition necessity adaptation of prosthesi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daptation Of Prosthesis		p-value
		Need	Needless	
	Total	169(66.0)	87(34.0)	
Sex	Male	68(55.7)	54(44.3)	0.001**
	Female	101(75.4)	33(24.6)	
Age(year)	60-69	86(74.1)	30(25.9)	0.009**
	70 <	83(59.3)	57(40.7)	
Education	Uneducated	88(77.2)	26(22.8)	0.001**
	More than Elementary-school graduate	81(57.0)	61(43.0)	

**p < 0.01

7. 인지한 구강건강상태

성별 구강건강상태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치아우식증이 있다 27.0% 치은염이 있다 7.4%, 치아우식증과 치은염 모두 있다 65.6%이었고, 여자의 경우 치아우식증이 있다 26.9%, 치은염이 있다 26.1% 치아우식증과 치은염 모두 있다 47.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 < 0.001), 연령별 구강건강상태 인지여부는 60~69세 치아우식증이 있다 26.7%, 치은염이 있다 25.0%이었고, 치아우식증과 치은염 모두 있다 48.3%, 70세 이상에서 치아우식증이 있다 27.1% 치은염이 있다 10.7% 치아우식증과 치은염이 모두 있다 62.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학력별 구강건강상태 인지여부는 무학이 치아우식증이 있다 21.9%, 치은염이 있다 23.7%, 치아우식증과 치은염 모두 있다 54.4%이었고, 초등학교 졸업이상에서 치아우식증이 있다 31.0% 치은염이 있다 12.0% 치아우식증과 치은염 모두 있다 57.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Table 7).

8. 현재 의치 사용 유무

성별 현재 의치 사용 유무는 남자의 경우 사용하고 있다

92.6%, 여자의 경우 사용하고 있다 59.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 0.001), 연령별 의치사용 유무는 60~69세에서 사용하고 있다 62.9%, 70세 이상에서 85.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학력별 의치사용 유무는 무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70.2%, 초등학교 졸업이상에서 7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의치를 사용하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Table 8).

9. 의치 관리 실태

의치 관리 실태는 세척 후 찬물에 보관 한다 세척하지 않고 보관 한다 취침 시에 구강 내 계속 장착하고 있다가 성별로 보면 남자가 65.6% 28.7%, 5.7%로 각각 나타났고, 여자는 95.5%, 4.5%, 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 < 0.001), 연령별로 보면 60~69세 81.9%, 17.2%이었고, 70세 이상은 80.7% 15.0% 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세척 후 찬물에 보관한다가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무학이 83.3% 13.2% 3.5%, 초등학교 졸업이상에서 79.6% 18.3%, 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9).

Table 7. Recognition oral health statu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aries	Gingivitis	Caries & Gingivitis	p-value
	Total	69(27.0)	44(17.2)	143(55.9)	
Sex	Male	33(27.0)	9(7.4)	80(65.6)	0.000***
	Female	36(26.9)	35(26.1)	63(47.0)	
Age(year)	60-69	31(26.7)	29(25.0)	56(48.3)	0.008**
	70 <	38(27.1)	15(10.7)	87(62.1)	
Education	uneducated	25(21.9)	27(23.7)	62(54.4)	0.029*
	More than Elementary-school graduate	44(31.0)	17(12.0)	81(57.0)	

*p < 0.05, **p < 0.01, ***p < 0.001

Table 8. Use of dentur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Use of denture		p-value
		Yes	No	
	Total	192(75.0)	64(25.0)	
Sex	Male	113(92.6)	9(7.4)	0.000***
	Female	79(59.0)	55(41.0)	
Age(year)	60-69	73(62.9)	43(37.1)	0.000***
	70<	119(85.0)	21(15.0)	
Education	uneducated	80(70.2)	34(29.8)	0.073
	More than Elementary-school graduate	112(78.9)	30(21.1)	

***p < 0.001

고 찰

노인의 구강상태는 축적되어온 구강병에 의하여 치아상실이 많고, 침샘의 위축 등으로 인한 구강점막의 건조, 탄력성 상실과 각화의 저하로 인해 구강에 많은 고통을 느끼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치경부 치아우식증, 치주병이 심해지기도 한다. 노인들의 심리변화가 위축되고 쇠퇴된 상태로 인해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는 당연히 나쁘다는 고정관념과 앞으로 남은 수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구강진료나 구강위생관리를 소홀히 여기거나 기피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의 오래된 구강관리 습관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보다는 점차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노인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구강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및 구강건강 수준을 파악하여 노인구강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노인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강보건행태에 있어 잇솔질 방법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횡마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1일 잇솔질 횟수는 1회와 2회가 각각 높게 나타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치과 방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별로는 남자는 1년에 1번 정도 내원하며(49.2%), 여자는 이가 아플 때 내원한다(47.0%)가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60-69세가 이가 아플 때에 내원한다(49.1%)가 가장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이가 아플 때에 내원한다(47.2%)가 가장 높아, 이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김¹⁵⁾등의 구강통증과 치과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에서 연령과 교육정도, 구강통증여부, 건강보험유무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과 부분적인 일치를 보였으며, 김¹⁶⁾ 등은 후천적 요인인 구강건강 행위(잇솔질, 구강진료이용도 등)가 구강건강의 주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라고 밝혔으며, 특히 노인의 사회적 환경인 사회적 관망(social network)이 노인의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¹⁷⁾. 건강행위는 사회적 자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강건강 역시 사회적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회 보장은 질병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한 노인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된다¹⁸⁾.

구강 내 보철장착 여부에 있어서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구강 내 보철장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었으며 (p < 0.001), 이는 저작 시 불편함은 식사에 의한 행복감을 박탈함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¹⁹⁾ 의치와 같은 보철치료는 치아상실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노인의 구강상태를 증진시킴으로써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모두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은염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김²⁰⁾ 등의 주관적 구강증상이 음식 저작장애, 치주상태, 치통 등이었고 노인구강보건사업의 초점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이라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현재 의치 사용유무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의치를 많이 장착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01). 의치관리 실태로는 세척 후 찬물 보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치과 병,의원에서 의치 장착시 환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 중 65~74세 현

Table 9. Status maintenance of dentur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Good*	Average**	Bad***	p-value
	Total	208(81.3)	41(16.0)	7(2.7)	
Sex	Male	80(65.6)	35(28.7)	7(5.7)	0.000***
	Female	128(95.5)	6(4.5)	-	
Age(year)	60-69	95(81.9)	20(17.2)	-	0.231
	70<	113(80.7)	21(15.0)	6(4.3)	
Education	uneducated	95(83.3)	15(13.2)	4(3.5)	0.447
	More than Elementary-school graduate	113(79.6)	26(18.3)	7(2.7)	

*** p < 0.001

* good: After meals, clean dentures properly using a toothbrush and keep them in cold water when going to bed

** average: After meals, clean dentures properly using a toothbrush, fail to keep them in cold water when going to bed

*** bad: Hardly ever clean dentures after meals, and go to bed without removing them

존자연치아수는 2003년 16.3개에서 2010년 19개로 증진시키는 것과 65~74세 전체 자연치아발거율을 15%로 낮추는 것이며 이를 위한 보건소 노인구강보건사업개발 및 활성화를 정책 과제로 하여 세부사업으로 의치보철사업, 거동장애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노인구강검진사업 등이 있으며,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의치보철 급여화 사업이 있다²¹⁾. 최²²⁾등은 삶의 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보다 구강건강이 중요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과 구강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였고, 구강관리 실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치아상실이 많고 구강 내 보철물이 많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상태에 의한 영향일수도 있다고 본다면 차후에는 노인의 사회경제상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2010년 장기구강보건정책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예방프로그램개발과 계속구강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되어 노년기에 빈발하는 구강질환과 예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면연구에 의한 연구결과를 유도함으로써 노인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 의한 수준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없으며, 조사대상자가 우리나라 1개 도시에서 편의표본 추출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전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강건강관리 실태에 의한 구강건강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며 향후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자료 보완과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구강건강 인지 및 수준을 파악하고자 만 60세 이상 노인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직접 면접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잇솔질 방법은 남자의 경우 횡마법, 여자의 경우 회전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60~69세에서는 회전법 68.1%, 70세 이상에서는 횡마법 8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01$).
2. 성별 치과방문 실태는 60~69세에서 이가 아플 때 내원한다가 49.1%로 높았고, 70세 이상에서 1년에 한번 내원한다가 47.9%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 구강 내 보철장착 필요성 인식여부는 여자가 75.4%로 남자보다 높았고, 60~69세에서 74.1%로 70세 이상 보다 60~69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5$), 학력별 구강 내 보철장착 필요성 인식여부는 무학 77.2%, 초등학교 졸업이상에서 57.0%로 무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4. 현재 의치사용 유무는 남자가 92.6%로 여자보다 의치사용율이 더 높았고, 60~69세에서 62.9%, 70세 이상에서 85.0%로 연령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5. 의치 관리 실태는 세척 후 찬물에 보관한다가 여자가 9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 < 0.001$), 연령별, 학력별 의치사용 유무는 세척 후 찬물에 보관한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정책 및 달성방안. 구강보건사업 연찬회자료 보고서, 서울, pp.9-11, 2004.
2.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연령별 추계인구(1960-2050). online <http://www.nso.or.kr> 7.20, 2006.
3.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년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5.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공중구강보건학. 고문사, 서울, pp.266-276, 2000.
6. 보건복지부: 2000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서울, pp.47-71, 2000.
7. 보건복지부: 2003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서울, pp.133-134, 2003.
8. Gunhild B, Alfred HG: A review of masticatory ability and efficiency. J Prosthet Dent 74: 400-403, 1995.
9.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 재개정판, 고문사, 서울, pp.278-286, 2000.
10. 장익준, 정성화, 박영애, 이희경, 송근배: 가철성 의치장착 노인의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0(3): 360-369, 2006.
11. 장중화, 백성희, 김애정, 정세환, 김옥수, 김숙향: 의치장착 노인의 구강건강이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0(4): 438-446, 2006.
12. 양정승, 김설희, 김동기: 광주광역시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의치만족도와 의료서비스 만족도.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0(3): 293-302, 2006.
13. 권호근, 김영남, 김백일, 유자혜: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8(1): 87-95, 2004.
14. 김영남, 권호근: 저소득층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8(2): 257-265, 2004.
15. 김평희, 조영태: 서울시 노인의 구강통증 여부 및 치과서비스 이용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1(1): 103-114, 2007.
16. 김혜영: 사회경제적 수준과 구강진료필요도의 연관성에 대한 건강행위, 구강진료이용도의 평가.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0(1): 85-94, 2006.
17. Bowling A, Browne PD: Social network,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the oldest old in London. J Gerontol 46(1): 20-32, 1991.
18. Kirsten A, Poul HP, Douglas EM, Matti V, Bengt W: Social relations as determinants of oral health among Persons over the age 80 year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31(6): 454-462, 2003.
19. Gilbert GH, Foerster U, Duncan RP: Satisfaction with chewing ability in a diverse sample of dentate adults. J Oral Rehabil 25(1): 15-27, 1998.
20. 김남희, 김현덕, 한동현, 진보형, 백대일: 서울지역 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의 주관적 구강증상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0(2): 141-150, 2007.
21. 보건복지부: Health Plan 2010. 보건복지부, 서울, pp.51-53, 2005.
22. 최정수, 정세환: 구강건강개발을 위한 전략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pp.55-60, 2000.

(Received September 6, 2007; Accepted December 16, 2007)

